

2019년 11월 4일, 서귀포시 예래동(상예1동) 강승화 씨 덕, 문순덕 · 김은정 조사.

강승화(남, 1938년생, 서귀포시 상예1동)

- 서귀포시 상예동 출생으로 20대에 5년 정도 타지 생활 이외에는 현재까지 상예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도깨비 김참봉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흙을 손가락으로 펴서 조금씩 나누어 주어 도깨비를 곡식창고에 모셨다. 그러나 삼십 년은 부자로 만들고 그 뒤에는 망하게 만들었다. 도깨비를 잡으려고 하면 말피를 동네에 뿌리면 된다.

[제보자] 옛날 도체비 말허카?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도체비라고 하든 참봉이라고 하지이. 김참봉. 들어봤지이?

[조사자] 예

[제보자] 머들레 일곱 밧인디 아홉 밧인가 있는 밧에 손가락 앓이고 가서 흙을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중중중중 허멍 집에 나누어 쫓어이. 풍요롭게 부자 만들어주켤이. 게난 그놈을 고팡에 모신 게 도체비라.

도체비가 이제는 그 머들레에서 오는 흙을 헛주마는 삼시간에 부자가 된 거라. 근디 삼십 년을 못넘겨. 삼십년 동안은 부제로 멘들고 또 삼십년 동안은 그해는 망한덴 헛어.

[조사자] 도체비 도움을 받으면? 삼십년이 유효기간이구나예.

[제보자] 삼십년 동안은 부제로 만들고. 게난 도체비를 잡으려고 하려는 물을 잡아가지고 올레 정낭에 물피 막 뿌리고 방쉬헛젠 해주게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김참봉, 물피(말피)